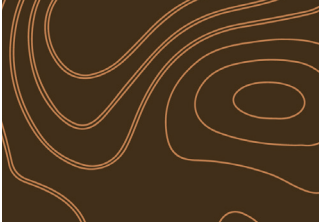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



Christian
Reformed
Church

Scripture quotations in this publication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Korean), © 2018 by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let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elcome your comments. Call us at 1-800-333-8300 or e-mail us at editors@faithaliveresources.org.

ISBN 978-1-59255-895-7

10 9 8 7 6 5 4 3 2 1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0여 개의 교회들이 연결된 북미주 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퍼져 있는 대가족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양성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이미 친숙한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자 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갓 이사를 와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라는 곳을 난생처음 방문하여 모든 것이 궁금한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셨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을 CRC로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 **함께 나아가기:**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에 담긴 우리의 헌신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 **함께 존재하기:** 우리의 뿌리가 어디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 **함께 믿기:** 우리가 교회로서 옳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함께 세워가기:** 우리는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모으는지 설명합니다.
- **공동체에 속하기:** CRC 교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기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정의하며, 비전선언문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서로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비전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전 세계의 삶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들과 조직, 사역들로 이루어진 다양성 있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존재하기

우리는 스스로를 '북미주 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기독교인(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심을 믿습니다.
- **개혁(Reformed):** 우리는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에서 뻗어 나온 '교회라는 나무'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개혁신교회라고 불립니다.
- **교회(Church):**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북미주(North America):** 우리가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며, 동시에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개혁신교회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규모로 볼 때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그리 큰 교단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1,000여 개의 교회들 중 약 75%는 미국에, 25%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각각의 교단으로 나누지 않고, 두 나라를 아우르는 보기 드문 이중 국가 교단입니다. 약 19만 명의 성도가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CRC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기독교 전체를 한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기원후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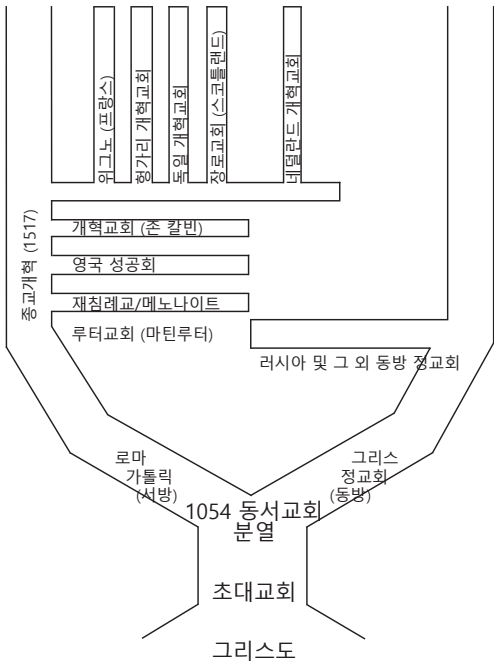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강인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신약에서 예수님과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세기 이후 교회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천 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든든한 줄기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1,000년경(1054년), 교회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라는 두 개의 큰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교회는 정치권력, 돈, 영향력과 얽히게 되었고, 그 결과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6세기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발전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CRC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교단이 이 운동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는 장로교(Presbyterian), 독일은 루터교(Lutheran), 영국은 성공회(Anglican)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Reformed)라 불렸습니다. 때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프랑스 개혁가 존 칼빈(John Calvin)의 영향으로 인해 '칼빈주의(Calvinis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줄기는 유아 세례를 주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결별하며 재세례파(Anabaptist)라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메노나이트(Mennonite)

와 침례교(Baptist)와 같은 북미의 여러 교단이 이
가지에서 맺힌 열매들입니다.



1840년대에 한 무리의 목사들과 농부들이 북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시간주 홀랜드라고 불리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1857년에 이르러 이들 중 한 그룹이 현재 CRC라고 불리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느 이민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단은 처음에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으며 그 정체성은 민족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민족적 색채는 없어졌고, CRC는 보다 전형적인 북미 교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출범 후 첫 100년 동안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와 50년대에 수만 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새롭게 개척한 북미주 개척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교단은 교세가 커져서 북미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1960년대에 CRC는 처음으로 여러 스페인어권 회중을 맞이했습니다. 쿠바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점차 대륙의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나가며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세울 곳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또 다른 이민의 물결이 CRC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많은 한국인 장로교인들이 CRC와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장한 한인 이민교회가 현재 전체 CRC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40년대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처럼 한인교회도 처음에는 모국어로 예배하지만, 2세들은 영어로 예배드립니다.

변화하는 북미의 환경 속에서 CRC는 점점 더 다민족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CRC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주 CRC 교회들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스페인어, 광둥어, 중국어, 라오스어, 스와힐리어, 나바호어, 프랑스어, 주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CRC는 전 세계 열방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믿기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함께 모였는지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북미에 퍼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까요? 또한 무엇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특정한 핵심 신앙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며 예배와 사역을 위해 모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의 대부분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기독교 교회와 공통으로 믿는 것들입니다. 수 세기 전 세계 교회가 채택한 세 가지 신경(creeds)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또한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트 신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는 교리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 신경 및 신앙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연합과 정의, 화해를 위한 부르심인 “벨하 신앙고백”과 현대어 신앙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개혁교회의 신앙 표현으로 인정하여 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신앙을 요약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신경의 본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한 다른 신앙 문서들은 crcna.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는 초기 수 세기 동안 신자들이 사도들의 구전 및 기록된 증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집하여 기독교 신앙의 주요 가르침으로 정제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의 여러 공의회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으며, 4세기 말 이전에 현재의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심을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세 단락에서 이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을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제1위격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한 각종 이데올로기에 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창조의 선함을 확증하며, 창조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나셨으며(눅 1:26-38),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만물의 주로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참된 기독교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요한복음 16:13) 인도할 보혜사, 곧 능력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시며,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깨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인과 공동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400년까지 수 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하여 성령님의 능력의 임재, 그리고 그 후 1세기 동안 이어진 교회의 확산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다룹니다. 또한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저자가 기록한 각기 다른 66권의 책들이 모인 모음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과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목적에 관한 풍성하고 정교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주제

개독교 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합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관계는 선하고 온전했습니다.

타락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죄 바이러스'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 제도, 관계나 개인의 행동까지도 이 오염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탐욕, 폭력, 압제뿐만 아니라 오염, 질병, 죽음, 마약과 같은 것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속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죄의 승리로 끝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구속하는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외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죄와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확장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 창조

언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의 흔적과 영향을 말끔히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과의 단절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악은 뿌리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개혁주의 액센트

우리는 앞서 북미주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전 세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단으로서 우리는 특정한 가르침이나 성경해석을 더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각 교단은 각각의 장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장기는 몸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영어 사용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각자의 억양(accent)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를 가리켜 '개혁주의 액센트'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개혁주의 액센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단어는 바로 주권, 언약,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액센트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국가의 통치에서부터 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 욕망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엡 2:1)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언약

개혁주의 액센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이나 조약과 비슷합니다. 이는 서로 약속을 하고 서명과 같은 적절한 방식을 거쳐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약’이라는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뜻합니다.)

이것이 반가운 소식인 이유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슬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2일만 되면 흐지부지되는 새해 결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가슴 아픈 것은, 온 맘 다해 맺었던 수많은 결혼 서약들이 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돌보고 인도하시겠다는 확고한 언약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굳게 지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혼자서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의 액센트가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된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날 첫 번째 기독교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그 죽음에 자신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약속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행 2:39)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언약 공동체적이며 세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에게 기쁘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유아에게도 똑같은 기쁨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유아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행해진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교인인 부모(또는 편 부모)의 자녀에게만 베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은 성장하며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아이들이 세례 당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장된 언약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임을 온 회중에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혁주의 액센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액센트는 매우 광범위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인간 문화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한 국경이 없습니다. 대성당 같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으며, '종교적' 활동으로 축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모든 만물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창조세계에 확장하시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회심과 변화라는 영적 경험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날마다, 계절마다 은혜로 피조 세계를 지탱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행동, 삶, 기술, 예술, 제도 등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덜란드 정치가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는 말은 우리 교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특별한 사역에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않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 즉 예술, 미디어, 출판, 법, 교육, 노사 관계, 복지, 농업, 비즈니스, 사회정의, 정치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습니다. CRC 공동체들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 왔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죄와 깨어짐 그리고 악이 여전히 세상에 횡행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으며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함께 세워가기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 교회들의 지역별 모임인 노회로서, 그리고 교단으로서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와 북미 전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CRC의 사역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복음 전파, 교육, 교회 지원, 구호 및 개발을 담당하는 우리 교단 사역기관들은 4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TV 방송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 기부, 사역분담금을 통한 후원이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교단의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을 반영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집니다.

신앙 교육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도들이 모든 연령과 삶의 단계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Thrive 교회사역부: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crcna.org/thrive

칼빈대학교: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명문 인문과학 대학으로, 학생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철저한 학문 연구와 의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calvin.edu

복음 선포와 예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칼빈신학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들을 양성합니다. 150년 전 설립된 이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과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alvinseminary.edu

Thrive 교회사역부: CRC 교회들 안에 이미 존재하는 창의적인 은사들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예배에 관한 깊은 통찰을 얻도록 교회들을 돕습니다. 또한 칼빈신학교의 설교 연구센터(Center for Excellence in Preaching) 및 칼빈대학교의 칼빈 기독교 예배연구소(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crcna.org/thrive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북미와 전 세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강화합니다.

ReFrame 미디어 선교부: 세계 10대 주요 언어로 전도와 제자훈련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reframeministries.org

Resonate 글로벌 선교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동행합니다. 글로벌 선교부의 역할은 교회를 대신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 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지역 선교', '교회 개척'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사역들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 내는 상호 연결된 표현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함께 신앙 성장을 돕고, 섬기는 리더십을 세우며,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글로벌 선교부의 역할은 섬기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다음의 신실한 걸음을 내딛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역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의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국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들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들과 협력 관계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 개척과 캠퍼스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resonateglobalmission.org

섬기는 리더십

풍성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평생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합니다.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Candidacy Committee):

교회를 섬길 목사들을 훈련하고 안수하는 과정을 인도합니다.

crcna.org/candidacy

Thrive 교회사역부 채플린 및 돌봄 사역: 병원, 직장, 교도소, 군대와 같은 기관 사역을 위해 채플린을 지원하고 양성합니다. 또한 전환기와 분별의 시기에 있는 교회와 리더들에게 컨설팅과 자원을 제공하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도모합니다. 목회자들의 웰빙을 지원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rcna.org/thrive

CRC 대출 기금(CRC Loan Fund, Inc.): 미국 내 CRC 교회들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crcna.org/loanfund

자비와 정의 사역

압제받고 버려진 소외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World Renew 국제 구제부: CRC의 구호 및 개발 기구로서, 전 세계 빈곤과 기아, 재난과 불의로 고통 받는 이들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worldrenew.net

캐나다 원주민 사역부: 캐나다 내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치유와 화해를 도모합니다.

crcna.org/Indigenous

Thrive 교회사역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성경적 정의와 다양성, 타문화 적응력을 키우도록 교회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사역을 지원합니다.

crcna.org/thrive

사회문제 참여센터(Centre for Public Dialogue): 캐나다 공공 생활에서 신앙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의와 소망, 화해를 증진합니다.

crcna.org/publicdialogue

기타 사역 프로그램

Faith Alive 교단 출판부: 주일학교, 성경공부, 전도, 예배를 위한 자료를 출판하며, 협력교단인 미국개혁신회(RCA)에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FaithAliveResources.org

The Banner 교단 매거진: 교단의 정기 간행물인 <배너>를 발행합니다.

www.thebanner.org

The Network: 온라인 포럼으로서, 지역 교회와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연결합니다.

crcna.org/network

협력 사역

이 외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남자 어린이를 위한 **Calvinist Cadet Corps**, 여자 어린이를 위한 **GEMS**, 청소년과 청년 사역의 리더십을 세우는 **ThereforeGo Ministries**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북서부의 **Dordt University**, 온타리오주 남서부의 **Redeemer University**,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The King's University**와 같은 기독교 대학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주의 기독교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 삶의 관계를 탐구하는 대학 수준의 인문교양 및 자연과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Barnabas Foundation**과 캐나다의 **Christian Stewardship Services**는 청지기 정신을 장려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집사들이 함께 **Diaconal Ministries Canada**를 세워 자원을 나누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동체에 속하기

이제 북미주 개혁교회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비전과 사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의 관계로 초대합니다.

누구나 지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욱 헌신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이 있을 때 신앙이 가장 잘 성장하게 되며, 또한 진정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헌신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누군가 보이지 않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특정 지도자 역할은 정식 교인에게만 맡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되듯,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자 동시에 합법적 조직으로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매년 교인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교인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인이 되고 싶다면 교회의 목회자나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함께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는 더 나아가, 북미주 개혁교회라는 하나님의 큰 가족
안으로 여러분들을 온 맘 다해 환영하고 싶습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na.org

ISBN 978-1-59255-895-7



9 781592 558957

216674